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단원의 시작

-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점검하여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박주, 바이너스의 주범?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단원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글, 삽화, 사진

2 제재 구성

- 시, 이야기, 만화, 노래,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읽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AI

"수업 시간에 비둘, 별칭 1원,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서 앉아 있지 않을, 별칭 2원, 수업 시간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동으로 수업 방해, 별칭 3원, 별칭 1원은 1원, 2원, 3원, 4원....., 별칭 2원은 1원, 2원, 3원, 4원....., 별칭 3원은 5원, 12원."

별칭 폭탄을 맞은 아이들은 어안이 났다. 인공 지능 로봇이 담임 수업 시간에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복 한 노이즈는 놀란 입을 다무는 것을 감싸서 원을 흘리면서 했다.

"무슨 별칭을 그렇게 매겨?"

"별칭 준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담임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 말씀이 없으시도 미리 초등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림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학습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학습은 어떤 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별칭 폭탄에 기가 죽은 아이들은 아주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학습에 대해서 유쾌하게 설명하고는 연습 문제를 풀라고 했다.

"와, 역시 인공 지능이라서 다르구나."

"학원 선생님과도 더 설명 주세요."

"문제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로부터 여러분은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여러 분이 동시에 질문을 해도 저는 스무 명의 질문을 모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 주겠습니다."

"정말합니다."

아이들은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뒤를 돌아 질문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자 딱히 질문할 것이 없는 아이들도 뭐든 말하고 싶었다. 짧은 소절이나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었다.

3 학습 활동 및 평가

- 제재를 읽고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 창의성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줄거리를 답해 봅시다.

키다리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2. 키다리가 농장 식구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3. 키다리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 「키다리 아저씨」에서 그림을 그린 듯 생생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 일줄을 그어 생각해 봅시다.

3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봅시다.

키다리는 농장 식구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키다리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생생하게 표현해 봅시다.

11

제재 글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을 익히거나 어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및 창의성 향상을 위한 중심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5 소원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봅시다.

구분	소원을 이루 방법	도움을 얻을 곳
소원 1		
소원 2		
소원 3		

배움 다지기

배움 다지기

배움 다지기

배움 다지기

학습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차례

1 박쥐, 바이러스의 주범? 7

2 생각한 대로 13

3 선생님은 AI 19

4 악플, 표현의 자유일까 27

5 육류, 덜 먹어야 할까요 35

6 한옥, 과학과 만나다 41

7 진짜 시와 가짜 시 47

8 클래식과 친해지기 55

9 역사상 최고의 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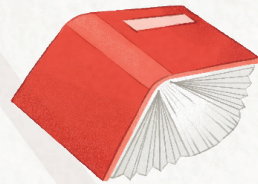
10 에드워드 제너와 종두 69

11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77

12 소원을 말해 봐 85

자료 출처 91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 튼튼 논술!

🔍 논술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란 읽은 글 속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많이 읽으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란 읽은 글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한 후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쓰기 능력이란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새롭고 남다른 근거를 들 수 있어야 힘 있는 논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술을 잘하려면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 보아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글을 자주 써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가 습관이 되면 논술은 더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됩니다.

1

박주, 바이러스의 주범?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쥐는 약 오 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서식해 왔다. 박쥐가 진화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 침투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면서 박쥐와 바이러스는 긴 공생 관계의 틀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박쥐는 거대한 바이러스 저수지인 자연 숙주●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박쥐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집단생활을 한다. 소형 박쥐들은 대개 한 동굴에 수백만 마리가 같이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 종의 박쥐가 서식할 수도 있다. 반면 대형 박쥐들은 소규모 무리 집단을 형성하며 집단 간 주기적인 교류도 이루어진다. 신체 활동이 왕성한 번식기 동안 이러한 집단생활은 박쥐 사이의 긴밀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식하는 경우도 흔하며 그런 경우, 서로 다른 바이러스들의 뒤섞임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따라서 박쥐 집단 내에서 신·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스 바이러스 출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로

다른 종의 중국 관박쥐 코로나바이러스들이 박쥐 몸속에서 뒤섞이는 과정을 통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잡종 바이러스를 탄생시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쥐 대부분은 수명이 길다. 긴 수명으로 인해 집단 내 존재하는 바이

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심지어 평생 감염과 재감염을 반복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박쥐는 동면과 일상 숙면을 취해서 저체온을 유지하면서 대사 에너지를 보존한다. 이는 박쥐의 면역 기

능을 억제해서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지속적 감염 상태를 유지한다.

박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 능력이 있어서 단기간에 병원체를 넓은 지역에 퍼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박쥐는 매일 먹이를 찾아다니고 계절에 따라 사는 곳을 옮긴다. 일부 박쥐종은 거의 2천 km를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과일 박쥐종의 경우 같은 장소에 여러 종이 모여 살면서 접촉을 자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는 매우 폭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다.

열대 지방에 사는 대형 과일 박쥐는 번식기 동안 필요한 에너지 보충을 위해 엄청난 양의 과일을 먹어 치운다. 그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과일 조각을 토해 내는데 감염된 과일 박쥐가 토해 낸 과일 조각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 또 가뭄이나 벌목 등으로 과일이 줄어들면 다른 야생 동물과 먹이다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증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에볼라다.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과일 박쥐와의 먹이 싸움 과정에서 자주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다. 운이 없게도 그 원숭이를 잡아먹은 침팬지, 또는 접촉한 사람은 에볼라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쥐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 동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이 된다.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자주 출현하는 이유이다.

● 숙주: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1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박쥐는 바이러스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나요?

2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의 어떤 습성으로 인해 생겨났나요?

3 열대 지방의 대형 과일 박쥐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2 박쥐가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이 된 원인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초과 어림짐작 소홀히 하는 것 생명을 위협하는 것

•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 종류는 1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람에게 치명적인 박쥐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자주 출현할까?

4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5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야생 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야생 동물을
먹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한국 동물 보호 연합-

저는 바이러스의
저장소일 뿐 야생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했나요?



2

생각한 대로

◆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두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